

북찬가 내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련타 ㉡ 묘여일신(藐如一身)
 턴지간(天地間)의 뉘 비(比) 홀고
 십세(十歲)에 조고(早孤) 하니
 엄안(嚴顏)을 안다 홀가
 일싱(一生)을 영폐(永廢) 하니
 군문(君門)을 브라볼가
 친 (親戚)이 다 불이니
 붕우(朋友)야 니를소나
 세군(細君) 조차 포병(抱病) 하니
 싱산(生産)도 머흘시고
 형데(兄弟)는 본디 엽고
 계즈(繼子)를 무자 일헤
 오륜(五倫)의 버서나니
 팔즈(八字)도 ㉢ 궁독(窮獨) 홀샤
 편친(偏親)만 의지(依支) 하여
 지낙(至樂)이 이썸이라
 고으(孤兒)의 두린 마음
 넘뵈 듯 다칠 듯
 과환(科宦)도 뜻이 업서
 세망(世網)을 피(避) 하니리다
 경낙(京洛) 곳치 번화지(繁華地)를
 전성시(全盛時)의 ㉣ 하덕(下直) 하고
 해곡(海曲)으로 김히 들어
 암혈에 김최이니
 경화직 못 맞나니
 인간(人間) 시비(是非) 내 아던가
 지원(至願)을 일우거나
 복지(福地)가 여기로다
 숙슈(菽水)를 못 니워도
 슬하(膝下)의 당시(長侍) 하여
 즈훈(慈訓)을 엄사(嚴師) 삼아
 삼천교(三遷教)를 브라보고
 아들 노릇 쥔 노릇
 유으희(乳兒戲)를 일삼으며
 친년(親年)이 점고(漸高) 하니
 원유(遠遊)를 의스(意思) 홀가
 절스(節祀) 길도 못 듯닐제
 지정(至情)이 ㉤ 결연(缺然) 홀샤
 집 뒤헤 턴장(遷葬) 하고
 도석(朝夕)의 비(瞻拜) 하니

양싱(養生)이며 스망(事亡) 하니
 정네(情禮)를 거의 펴 듯
 님신(立身) 편양(便養) 못 하니
 힘대로나 맞들니라
 후스(後嗣)도 ㉥ 처량(淒涼) 하니
 내 몸스장 다호오려
 천만(千萬) 근심 다 브리고
 여싱(餘生)을 즐기러니
 경심(驚心타) 지어양(池魚殃)에
 목은 불 날어나니
 삼십여(三十餘) 년(年) 녹힌 은전(恩典)
 오늘날에 쏜 면(免) 홀가
 향옥(鄉獄)에 즈침(自就) 하여
 처분(處分)을 기드일시
 백일(白日)에 벽녁(霹靂) 느려
 눈 우희 서리 치니
 눈섭에 찌러진 ㉦厄(厄)
 독의 든들 피(避) 홀년가
 일신(一身)의 화복(禍福)이야
 피창(彼蒼)만 미더신들
 외로울스 우리 편모(偏母)
 놀노 하여 위안(慰安) 홀고
 일월(日月)이 고명(高明) 하니
 옥석(玉石)을 굴희시니
 특지(特旨)의 흔 말숨이
 ㉧ 자명(自鳴)흔 들 더홀소나
 죽은 남기 몸을 만나
 므른 씨희 슬 도치니
 남찬(南籛) 하니 북적(北謫)흔 들
 죄(罪)가 아냐 영광(榮光)일시
 투저(投杼)하던 남은 경혼(驚魂)
 의녀(倚閭)하고 감읍(感泣)홀네
 이 군은(君恩)이 턴형(天幸)은
 결초(結草)흔 들 다 갑홀가
 소미(素昧)에 강도상(江都相)도
 법(法) 맞기는 측은(惻隱)커늘
 지친(至親)의 판금오(判金五)는
 내 언제 저브린가
 불모지(不毛地) 좇고 차자
 극북(極北)에 더지이니
 북당(北堂)의 미즌 말이
 놀나온듯 다행(多幸)흔 듯

험딘(險津)을 헤지 말고
 듀야(晝夜)로 돌녀 와서
 흐르 밤 흐르 나줄
 손 잡고 작별(作別) 흘시
 [B] 친의(親意)를 단정(鎭定) 흐려
 모진 므음 돌녀 먹고
 설운 간당(肝腸) 설이 담아
 눈물을 츄고 츄아
 하덕(下直) 흐고 문(門)을 나니
 가슴이 터지거다
 팔 (八尺) 당신(長身) 설잉구여
 반부담(半負擔)의 실녀시니
 창능참(昌陵站) 수십리(數十里)의
 송쥬(松楸)를 지나갈시
 조훈(祖訓)을 듯좁는 듯
 ㄴ 혼(兒魂)이 썩로논 듯
 지원(至冤)흐 빠힌 회포(懷抱)
 통곡(痛哭)흐 들 풀닐소냐
 엄전(嚴譴)이 유한(有限)흐니
 경국(頃刻)인들 엄뉴(淹留)흘가
 부용물 채쳐 몰아
 십전구돈(十顛九頓)면(免)흐소냐
 양쥬(楊州)라 노던 썩희
 구안면(舊顔面)이 다 피(避)흐고
 청화현(淸化縣) 낫제 들어
 주인(主人)도 도타마는
 형식(行色)이 불 디 업서
 간 곳마다 ㄹ 곤욕(困辱)이라
 자고 새아 가고 가니
 뒤길은 날날 머니
 보리 비탈 삼일우(三日雨)에
 정삼(征衫)을 다 적시고
 고산녕(高山嶺) 계유 올라
 경국(京國)을 굽어 보니
 부운(浮雲)이 폐식(蔽塞)흐야
 남북(南北)을 못 굴힐다
 낭천스(梁泉寺) 츠자 들어
 스싱(死生)을 묵도(默禱)흐고
 전정(前定)을 점검(點檢)흐니
 신세(身世)도 곤익(困厄)흐다
 청운상(靑雲上) 넷 밋이야
 스거(使車)로 돌녀신들
 탈(頃) 업슨 초원객(草原客)은
 저는 조차 도피(逃避)흐니
 말 못흐는 강산(江山)의 둘

이 경식(景色)의 눈을 듣가
 낙민누(樂民樓) 만세교(萬歲橋)를
 솜결의 디나거다
 관남(關南) 관북(關北) 갈닌 길흘
 단천(端川)으로 내여 노코
 청히영(靑海營) 물을 쉬워
 부녕(富寧) 적행(謫行) 히후(邂逅)흐예
 길쥬(吉州) 명천(明川) 어드메오
 경뢰(瓊雷) 상망(相望) 머도 멀샤
 안변(安邊) 참보(慘報) 경통(驚痛)흐다
 도청도설(道廳道說) 솜이과져
 녕남극변(嶺南極邊) 제도 가니
 □분오녔□分五裂 수절(愁切)흘샤
 궁황절막(窮荒絕漠) 일도노(一條路)에
 □신□身 고향(孤子) 더욱 다
 후치(厚峙) 매덕(賣德) 무인지(無人地)를
 구뵈구뵈 쉬여 넘어
 능귀촌(能歸村) 더위 잡아
 호닌역(呼麟驛) 도라 들어
 백두산(白頭山) 꺾히 두고
 녀진국(女眞國) 남은 터히
 익가 수풀 헤쳐 내어
 형극(荊棘)을 열어서니
 팔면부지(八面不知) 일향창(一鄉倉)과
 셔식(棲息)을 의탁(依託)흐고
 동(尺僅)을 편지 주어
 친정(親庭)의 도라갈시
 가향(家鄉)은 한 ㄹ이라
 인즈니정(人子離情) 아득흐다
 삭풍(朔風)은 들어 치고
 스산(四山)은 육인 골이
 히 묵은 얼음이오
 조쥬(早秋)의 눈이 오니
 빅초(百草)가 선녕(先零)커든
 만곡(萬穀)이 될 세 업니
 귀보리밥 못 니으며
 니뵈이아 구경흘가
 소치(蔬菜)도 주리거니
 어육(魚肉)을 싱각흘가
 가족웃 과하(過夏)흐니
 포피(布被)로 어한(禦寒) 엇지
 마니사곡(摩尼沙谷) 별건곤(別乾坤)에
 산진히착(山珍海錯) 어디 두고
 화외삼갑(化外三甲) 호난 악지(惡地)
 빅 (百種) 만물(萬物) 그리노고

추국(秋菊) 낙영(落英) 엷은 곳에
 녕균(靈均)인들 석찬(夕餐) 할가
 고죽(菰竹) 두견(杜鵑) 못 들으니
 낙텨(樂天)이도 할 말 업니
 미친 실음 플작시면
 분니곤고(分內困苦) 현스 할가
 토산(土產)의 박박주(薄薄酒)도
 괴나마나 미매(買賣) 엷고
 기악(妓樂)은 하것마는
 어니 경(景)에 금가(琴歌) 할가
 당평산(長平山) 허천강(虛川江)에
 유남(遊覽)에도 뜻이 업니
 민풍(民風)도 후(厚)타 헛되
 웃거라도 아니 온다
 붓덥고 흠닌 방에
 두문(杜門) 헛고 홀노 이셔
 승예(蠅蛸)는 폐창(蔽窓) 헛고
 조갈(蚤蝨)은 만벽(滿壁) 헛디
 안즌 곳의 히 디우고
 누운 자리 밤을 새와
 잠든 밧기 한숨이오
 한숨 뵈히 눈물일시
 밤밤마다 꿈의 뵈니
 꿈을 둘너 상시(常時)과져
 학발조안(鶴髮慈顏) 못 보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조즐염은
 기드 린들 통이 올라
 오노라면 둘이 넘니
 못 본 제는 기드리나
 보니는 식환 할가
 노친(老親) 소식(消息) 나 모를 제
 내 소식(消息) 노친(老親) 알가
 천산만수(千山萬水) 막힌 길히
 일반고스(一般苦思) 뉘 헤울고
 문노라 붉은 돌아
 양지(兩地)의 비최거뇨
 색로고져 쓰는 구름
 남텨(南天)으로 뉘는고야
 흐르느 내히 되여
 집 압히 돌넛고져
 누느 듯 새나 되여
 창전(窓前)의 가 노닐고져
 내 막음 헤여헛니
 노친(老親) 정스(情思) 날너 무슴
 여의(如意) 일흔 농(龍)이오

치(鴟) 엷은 비 아닌가
 추풍(秋風)의 낙엽(落葉) 곳히
 어드메 가 지박(止泊) 할고
 제택(第宅)도 파산(破散) 헛고
 친속(親屬)은 분찬(分畝) 헛니
 도노(道路)의 방황(彷徨) 헛들
 할 곳이 전혀 업니
 어느 때에 잠으시며
 무스 거슬 잡습느고
 일점으리 솟히더니
 어느 조손 디신(代身) 할고
 나 아니면 뉘 뵈시며
 조모(慈母)밧기 날 뉘 꺾고
 늙의 엷은 모조(母子) 정니(情理)
 슈유상니(須臾相離) 못헛더니
 조물(造物)을 뉘이건가
 이대도록 제쳐 온고
 말노장신(末路藏身) 덜헛던가
 석일건양(昔日愆殃) 못 씨칠다
 텨명(天命)인가 가운(家運)인가
 뉘 탓시라 원망(怨望) 할고
 가묘신알(家廟晨謁) 구폐(久廢) 헛고
 구목슈호(丘木守護) 할 길 업니
 스시(四時) 가절(佳節) 다 보내고
 상여기신(喪餘忌辰) 도라올 제
 분향(焚香) 전작(奠酌) 못헛을 일
 싱니(生內)에 처음이라
 텨애(天涯) 고훈(孤恨) 더져두고
 친변경상(親邊景像) 오죽 할가
 마지 말아 룬낙(淪樂)거든
 형데(兄弟)나 두도던가
 형데(兄弟)가 종선(終鮮)커든
 조성(子姓)이나 니윳던가
 독신(獨身)이 무후(無後) 헛여
 시측(侍側)에 의탁(依托) 엷서
 무한(無限)헛 애만 씹위
 불효(不孝)도 막대(莫大)헛다
 조탄신세(自歎身世) 할 일 엷서
 출알오 잇조 헛되
 한을 삼긴 소스 정이
 ㊤ 절노 나니
 긴긴 낮 김흔 밤의
 천니상스(千里相思) 헛 굴 곳히
 흐르도 열두 재오
 헛 들도 설흔 날에

날 보내고 들 디내여
 허마 거의 반년(半年)일시
 일어구려 히포 되면
 사나 마다 무엇 흘고
 고낙(苦樂)이 순환(循環) 하니
 어니 날에 도라갈고
 텃상금계(天上金鷄) 울어 네면
 우습 웃고 이 말하리
 아마도 우리 성군(聖君) 효니하(孝理下)의
 명춘(明春) 은경(恩慶) 미츠쇼서

01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을 굳건히 지키려는 의지적 자세를 드러낸다.
- ② ㉡: 세속적 번뇌를 끊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자발적 은둔의 결단을 의미한다.
- ③ ㉢: 임금의 은혜가 너무나 명확하여 스스로 증명될 필요조차 없음을 강조한다.
- ④ ㉣: 유배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고통이 정신적 성숙으로 승화됨을 뜻한다.
- ⑤ ㉣: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02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한탄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병치하여 과거의 영화와 현재의 초라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자연물을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매개체로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유배 여정의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궁극적으로는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객관화하여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② ㉡: 가족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홀로 남겨진 화자의 절대적 고독감을 집약한다.
- ③ ㉢: 부모를 모시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식으로서의 미안함과 부족함을 표현한다.
- ④ ㉣: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상황에 대한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담고 있다.
- ⑤ ㉣: 이별의 순간을 맞이한 화자의 내면 풍경을 외부의 자연경관에 투영하여 형상화한다.

04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고통을 운명론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원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 ② 유배 생활의 물리적 결핍보다는 신의를 저버린 옛 벗들에 대한 배신감에 집중하고 있다.
- ③ 연로한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난 불효에 대한 죄책감이 정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 ④ 임금의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 ⑤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려는 개척자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0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 ② 화자는 유배지로 향하는 길에 고향의 조상 묘소를 지나며 통곡하였다.
- ③ 유배지인 삼갑 지역은 보리밥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척박한 곳이다.
- ④ 화자는 유배지에서 만난 이웃들과 술을 나누며 시름을 달래고 있다.
- ⑤ 화자는 자신의 유배가 조상의 죄나 자신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06

윗글의 '유배 여정'에 대한 묘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주를 지날 때 아는 얼굴들이 화자를 피하는 냉담한 현실을 경험한다.
- ② 청화현에 도착했을 때 주인은 호의적이었으나 화자 스스로의 행색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 ③ 고산령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았으나 구름에 가려 분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 ④ 안변에서 들려온 비보를 꿈이기를 바랄 정도로 큰 충격과 경악 속에 받아들인다.
- ⑤ 백두산 근처 여진족의 옛 터에 도착하여 스스로 가시덤불을 헤치며 거처를 마련한다.

07

윗글의 '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투영된 매개체이나 깨어난 후의 허탈감을 심화한다.
- ③ 미래에 대한 예언적 기능을 통해 화자가 곧 유배에서 풀려날 것임을 암시한다.
- ④ 유배지의 척박한 현실과 대비되는 화려한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는 공간이다.
- 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도덕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내면적 투쟁의 장소이다.

08

윗글의 시상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비'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낙'의 변화함과 '히곡'의 고요함을 대비하여 유배 초기의 심리적 안정을 강조한다.
- ② '산진히착'과 '귀보리밥'을 대비하여 유배지에서의 급격한 생활 수준 저하를 드러낸다.
- ③ '삭풍'과 '눈'이 내리는 유배지의 기후와 화자가 그리워하는 '남툰'의 이미지를 대비한다.
- ④ '승예'와 '조갈'이 가득한 방의 불결함과 과거 '제택'의 정갈했던 삶을 대조한다.
- ⑤ '성군'의 효치와 화자의 '불효'를 대비하여 임금에 대한 충성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연결한다.

09

윗글을 바탕으로 화자의 상황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가문의 몰락과 개인적 불행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하며 체념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임금의 자비로운 판결 덕분에 유배지에서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 ③ 화자는 자연의 섭리인 '고낙순환'의 원리를 깨달음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초월한 정신적 경지에 도달했다.
- ④ 화자는 자신의 유배가 정치적 시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운의 불운과 천명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다스린다.
- ⑤ 화자는 어머니에 대한 효와 임금에 대한 충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인식하고, 유배 생활을 충효의 실천 과정으로 수용한다.

10

[A]와 [B]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비애가, [B]에서는 어머니와의 이별에서 오는 단장(斷腸)의 슬픔이 나타난다.
- ② [A]에서는 세속적 명리에 대한 미련이, [B]에서는 유배지로 향하는 길의 험난함에 대한 두려움이 주를 이룬다.
- ③ [A]에서는 가족들의 외면에 대한 분노가, [B]에서는 조상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강조된다.
- ④ [A]에서는 홀로 남겨진 고독에 대한 공포가, [B]에서는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신하의 고뇌가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가, [B]에서는 슬픔을 인내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11

윗글의 마지막 부분인 '아마도 우리 성군 효니하의 명춘 은경 미츠쇼셔'에 담긴 화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금의 효치(孝治)를 찬양함으로써 자신의 불효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결백이 밝혀져 내년 봄에는 반드시 복권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다.
- ③ 임금이 효를 중시하는 정치를 펴고 있으니, 효자인 자신을 사면해 달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고 있다.
- ④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견뎌낸 보상으로 높은 관직에 나아가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낸다.
- ⑤ 백성들을 효로 다스리는 임금의 치세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신하로서의 순수한 충정을 보여준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배 가사는 작가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유배지로 떠나는 과정과 그곳에서의 삶을 기록한 문학 양식이다. 대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임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충(忠)'의 가치와, 부모를 떠난 슬픔과 그리움을 토로하는 '효(孝)'의 가치가 교차하며 나타난다. 특히 '북천가'는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묘사를 통해 사실성을 높이면서도, 자신의 불행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문의 운명이나 천명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내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① '죄가 아냐 영광일시'라는 표현은 자신의 유배를 임금의 특별한 관심으로 치환함으로써 '충'의 가치를 극대화한 것이겠군.
- ② '분향 전작 못하올 일'을 슬퍼하는 모습은 유배라는 물리적 격리 상황이 '효'의 실천을 가로막는 근원적 고통임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③ '안즌 곳의 히 디우고 누운 자리 밤을 새와'라는 묘사는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겪는 화자의 고독과 고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턴명인가 가운인가 닐 닻시라 원망홀고'라는 진술은 자신의 불행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음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방어 기제의 일환이겠군.
- ⑤ '화외삼갑 호난 악지'에서 '만물'을 그리워하는 태도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유배지를 새로운 '복지'로 개척하려는 의지의 산물이겠군.

13

〈보기〉의 시와 윗글을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내 마음 배혀 내여 저 들을 문들고져 / 구만리 당턴(長天)에 번드시 걸려 이셔 / 고온 님 겨신 곳에 가 비최어나 보리라. - 정철, 〈속미인곡〉 중

[설명] 위 시조는 임과 이별한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달(객관적 상관물)에 투영하여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 ① 윗글의 '들'은 화자의 소식을 임금에게 전하는 매개체인 반면, 〈보기〉의 '들'은 임의 안위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 ② 윗글의 '구름'은 화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반면, 〈보기〉의 '당턴'은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는 초월적 공간이다.
- ③ 윗글과 〈보기〉 모두 천상계의 존재인 '달'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적 거리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윗글은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으나, 〈보기〉는 자연물을 통해 슬픔을 절제하며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⑤ 윗글의 화자는 자연물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현실 도피를 꿈꾸지만, 〈보기〉의 화자는 자연물을 통해 현실 복귀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14

윗글에 나타난 '효(孝)'의 개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모의 생전 봉양(양심)뿐만 아니라 사후의 예우(스망)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가치이다.
- ② 부모의 가르침(조훈)을 엄격한 스승의 가르침처럼 받드는 정신적 계승을 중시한다.
- ③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모시는 것(당시)을 효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으로 본다.
- ④ 자신의 몸을 보전하고 후사를 잇는 것(후스)은 부모에게 받은 몸을 아끼는 효의 연장선에 있다.
- ⑤ 개인의 효심은 국가적 차원의 충성심보다 우선하므로, 유배 상황에서도 효를 위해 충을 유보할 수 있다.

15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운명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천명'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
- ② 과거의 잘못(건양)이 현재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 ③ 자신의 불행이 가문의 운명(가운) 때문이라고 믿으며, 조상에 대한 원망을 주된 정서로 삼는다.
- ④ 신분 질서의 붕괴와 같은 사회적 변동을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식한다.
- ⑤ 우연히 닥친 재난(지어앙)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대응도 무의미하다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

북찬가 내신 문제지 · 정답 및 해설

01 시어의 문맥적 의미

개념혼동

정답: ③ ㉔: 임금의 은혜가 너무나 명확하여 스스로 증명될 필요조차 없음을 강조한다.

[출제의도]

시어의 문맥적 의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㉔ '자명(自鳴)'은 임금의 특별한 교지(특지)가 너무나 분명하여 스스로 올리는 종과 같이 명백하다는 의미로, 자신의 결백을 알아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 ① ㉑ '묘여일신'은 보잘것없는 한 몸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이고 가련한 인식을 드러낼 뿐 의지적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② ㉒ '하덕'은 한양을 떠나는 인사를 의미하며, 이는 유배라는 타의에 의한 떠남이지 자발적 은둔이 아니다.
 ④ ㉓ '곤육'은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함을 의미하며, 지문에서 이를 정신적 성숙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㉕ '절노'는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정서를 의미하므로 인위적 노력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02 표현상 특징

선택지재구성

정답: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궁극적으로는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 전체에 사용된 주요 표현 기법과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⑤ 윗글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는 표현은 풍부하게 나타나지만, 유배의 고통을 자아 성찰의 계기로 삼는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늪 비홀고', '니를소냐' 등 설의법이 도처에 사용되어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경낙'과 '히곡', '산진히착'과 '귀보리밥' 등 대조적 시어를 통해 현재의 결핍을 강조한다.
 ③ '구름', '내(시내)' 등을 통해 고향과 어머니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투영하고 있다.
 ④ 한양에서 안변, 단천을 거쳐 삼갑(유배지)에 이르는 여정이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03 담화 및 정서 분석

개념혼동

정답: ① ㉑: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객관화하여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출제의도]

밑줄 친 시어들이 화자의 정서적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① ㉑ '가련타'는 화자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는 주관적 정서의 직접적 표출이지, 자신을 타자처럼 바라보는 객관화된 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② ㉒ '궁독'은 의지할 데 없이 외롭다는 뜻으로, 앞서 언급된 친척과 친구의 외면 상황과 연결된다.
 ③ ㉓ '결연'은 모자람이 있다는 뜻으로, 부모의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불효의 감정을 드러낸다.
 ④ ㉔ '쳐낭'은 처량하다는 뜻으로, 후사가 없어 자신의 대에서 끊길 처지에 대한 슬픔을 나타낸다.
 ⑤ ㉕ '참담'은 해의 빛깔조차 참담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배경에 투영한 것이다.

04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인과역전

정답: ③ 연로한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온 불효에 대한 죄책감이 정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출제의도]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지배적인 정서를 정확히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지문 곳곳에서 '외로울손 우리 편모', '불효도 막대하다' 등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불효에 대한 자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시상을 이끌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운명론적 수용(탄명인가 가운인가)은 나타나나, '늪 탓시라 원망홀고'라며 타인 원망을 부정하고 있다.
 ② 옛 벗들에 대한 언급(저는 조차 도피하느니)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서운함일 뿐 작품 전체의 핵심 정서는 아니다.
 ④ 임금의 처분을 '영광'이자 '탄형'으로 받아들이며 감격하고 있으므로 억울함 호소는 적절하지 않다.
 ⑤ 환경의 척박함(호난 악지)을 한탄하고 그리워할 뿐,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05 내용의 세부적 이해

조건누락

정답: ④ 화자는 유배지에서 만난 이웃들과 술을 나누며 시름을 달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④ 지문 후반부에 '토산의 박박쥬도 기나마나 미매 업고', '웃거리도 아니 온다'는 표현을 통해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으며 술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십세에 조고하니', '편친만 의지하여'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 ② '송추를 디나갈시', '통곡흔들 풀닐소나'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 ③ '귀보리밥 못 니으며', '니뻘쌀이아 구경홀가'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 ⑤ '석일건양 못 췌칠다', '턴명인가 가운인가'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구절의 정밀 분석

부분→전체

정답: ⑤ 백두산 근처 여진족의 옛 터에 도착하여 스스로 가 시덤불을 헤치며 거처를 마련한다.

[출제의도]

여정의 각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과 화자의 반응을 정밀하게 대조한다.

[정답 풀이]

- ⑤ 지문에서 '익가 수풀 헤쳐 내여 형극을 열어서니'라고 하여 거처를 마련하는 묘사는 있으나, 이는 '팔면부지 일향창과 서식을 의탁하고'라는 구절과 연결되어 타인(현지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스스로'라는 한정적 표현은 부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양주라 노던 썩희 구안면이 다 피하고'에서 확인된다.
- ② '쥬인도 도타마는 형식이 볼 디 업서'에서 확인된다.
- ③ '부운이 폐식하야 남북을 못 굴힐다'에서 확인된다.
- ④ '안변 참보 경통하도 도청도설 솜이과져'에서 확인된다.

07 소재의 기능과 의미

유사어혼동

정답: ②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투영된 매개체이나 깨어난 후의 허탈감을 심화한다.

[출제의도]

특정 소재가 작품 내에서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화자의 심리를 연결한다.

[정답 풀이]

- ② '밤밤마다 솜의 뵈니', '좁든 밧긔 한숨이오' 등의 구절을 통해 꿈속에서라도 어머니를 뵈고 싶어 하지만, 깨어난 후에는 오히려 한숨과 눈물만 남는 상황을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도피처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의 그리움을 증폭시키는 장치에 가깝다.
- ③ 유배 해제를 암시하는 복선으로 쓰이지 않았다.
- ④ 과거의 영화보다는 현재의 결핍(어머니의 부재)을 채우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 ⑤ 도덕적 투쟁과는 관련이 없는 정서적 그리움의 발현이다.

08 시상 전개와 구조

맥락이탈

정답: ① '경낙'의 변화함과 '히곡'의 고요함을 대비하여 유배 초기의 심리적 안정을 강조한다.

[출제의도]

작품의 구조적 특징인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층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① '경낙'과 '히곡'의 대비는 나타나지만, 이는 유배 초기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비로부터 멀어지려는 태도와 이후 겪게 될 고난의 전조로 읽어야 한다. 지문 전체에서 화자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과거의 풍족한 음식과 현재의 거친 음식을 선명하게 대비한다.
- ③ 북쪽의 추위와 어머니가 계신 남쪽의 따뜻함을 공간적 대비로 활용한다.
- ④ 현재의 비참한 거처와 파산하기 전의 집을 대조하여 상실감을 부각한다.
- ⑤ 임금의 효도를 본받아 자신도 효를 다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09 종합적 추론과 이해

강도강화

정답: ④ 화자는 자신의 유배가 정치적 시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운의 불운과 천명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다스린다.

[출제의도]

지문의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화자의 세계관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추론한다.

[정답 풀이]

- ④ 화자는 '인간 시비 내 아던가', '턴명인가 가운인가 뉘 탓시라 원망홀고' 등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불행을 정치적 갈등보다는 운명적인 것으로 돌리며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한다.

[오답 풀이]

- ① 체념하는 듯 보이지만 마지막에 '명춘 은경'을 기대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 ②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유배에서의 생활은 '볼 디 업는 형식'과 '곤욕'으로 가득하여 품위 유지와는 거리가 멀다.
- ③ '고낙이 순환하니'라는 인식을 보이지만, 이는 초월의 경지라기보다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희망의 근거로 사용된다.
- ⑤ 충과 효를 모두 중시하지만, 유배 생활 자체를 긍정적인 실천 과정으로 즐겁게 수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0 인물의 심리와 갈등 분석

부분→전체

정답: ① [A]에서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비애가, [B]에서는 어머니와의 이별에서 오는 단장(斷腸)의 슬픔이 나타난다.

[출제의도]

지문의 서로 다른 두 구간을 비교하여 화자의 심리 변화와 심화 과정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A]는 서두에서 자신의 기구한 팔자와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며, [B]는 유배를 떠나며 어머니와 작별하고 조상

의 묘를 지나며 겪는 극심한 슬픔(가슴이 터지거나, 통곡)을 묘사한다.

[오답 풀이]

- ② [A]에서 명리에 대한 미련은 나타나지 않으며, [B]의 핵심은 두려움보다 이별의 슬픔이다.
- ③ [A]에서 친척들의 외면을 언급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깝고, [B]의 핵심은 조상의 가르침보다 이별 그 자체다.
- ④ [B]에서 임금의 명령(엄견)을 언급하지만 고뇌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수용과 그로 인한 이별의 슬픔이 강조된다.
- ⑤ [A]에서 의지는 보이지 않으며, [B]에서 눈물을 참으려 노력하지만 결국 '가슴이 터지거나'라며 평정심 유지에 실패한다.

11 주제 및 가치관의 통합 이해

조건누락

정답: ③ 임금이 효를 중시하는 정치를 펴고 있으니, 효자인 자신을 사면해 달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의 결미에 나타난 화자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논리를 통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화자는 작품 내내 자신의 불효(어머니를 모시지 못함)를 한탄해 왔다. 따라서 효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효니아)이라면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는 자신의 사정을 살펴 은혜(은경)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불효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를 멈출 수 있게(어머니께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 ② 확신이라기보다는 간절한 소망과 기원에 가깝다.
- ④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세속적 포부보다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다.
- ⑤ 순수한 충정도 포함되나, 자신의 구체적 상황(유배 해제)과 결부된 실리적 기원이 핵심이다.

12 외부 사례 적용 및 감상

맥락이탈

정답: ⑤ '화외삼갑 호난 악지'에서 '만물'을 그리워하는 태도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유배지를 새로운 '복지'로 개척하려는 의지의 산물이겠군.

[출제의도]

비평적 관점을 제시한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정밀하게 감상한다.

[정답 풀이]

- ⑤ 지문에서 '악지'에서 만물을 그리워하는 것은 현재의 고향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각이지, 이를 개척하려는 의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보기>에서도 유배지 묘사는 '사실성'과 '심리적 방어'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지 '개척 의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임금의 처분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충의 전형적 모습이다.
- ② 제사를 모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슬픔은 효의 가치와 직결된다.

- ③ 잠 못 이루는 밤의 묘사는 유배 생활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 ④ 원망의 대상을 천명으로 돌리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심리적 방어 기제와 일치한다.

13 타 작품과의 비교 감상

개념혼동

정답: ③ 윗글과 <보기> 모두 천상계의 존재인 '달'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적 거리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출제의도]

유사한 소재를 사용한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윗글에서 '문노라 붉은 돌아 양지의 비취거노'라며 달을 통해 어머니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과, <보기>에서 달이 되어 임이 계신 곳을 비추고 싶어 하는 마음은 모두 공간적 단절을 극복하려는 소망의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윗글의 달은 어머니와의 연결 고리이지 임금에게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 ② 윗글의 '구름'은 남천으로 달려가고 싶은 화자의 분신(투영체)으로 쓰였으므로 장애물이 아니다.
- ④ <보기> 역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담고 있으므로 관조적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 ⑤ 두 작품 모두 현실 도피보다는 대상(어머니, 임)에 대한 그리움의 표출이 핵심이다.

14 핵심 개념의 정밀 분석

논리적비약

정답: ⑤ 개인의 효심은 국가적 차원의 충성심보다 우선하므로, 유배 상황에서도 효를 위해 충을 유보할 수 있다.

[출제의도]

작품의 핵심 가치인 '효'가 지문 내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변주되는지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윗글의 화자는 효를 극진히 생각하면서도 임금의 명령(엄견)을 감히 어기지 못하고 유배지로 향한다. 즉, 충과 효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충(국가적 명령)을 유보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양심이여 소망하매 정네를 거의 떨 듯'에서 확인된다.
- ② '주흔을 엄사 삼아'에서 확인된다.
- ③ '슬하의 당시호여'를 지낙(지극한 즐거움)으로 여기는 데서 확인된다.
- ④ '후수도 처낭하니 내 몸신장 다호오려'에서 후사가 없는 것을 큰 불효로 인식하는 데서 확인된다.

15 윤명관의 정밀 분석

개념혼동

정답: ①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천명'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

[출제의도]

화자가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는 틀인 '운명관'을 정밀하게 해부한다.

[정답 풀이]

- ① 화자는 '련명인가 가운인가'라며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마지막에 '고낙이 순환하니'라며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석일건양 못 세칠다'라며 과거의 허물을 돌아보는 태도가 나타나므로 전면 부정은 틀린 설명이다.
③ 가운을 언급하지만 '뉘 탓시라 원망홀고'라며 원망을 경계하고 있다.
④ 사회적 변동보다는 개인적/가문적 차원의 운명과 임금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⑤ 고통스러워하지만 '명춘 은경'을 기원하는 등 허무주의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